

포도농장하며 친환경농업 전도사로 활약

최준혁 · 김영혜 부부
경북 상주군 모동면 덕곡리

최준혁(60세) 씨는 나이 50세였던 1996년 서울에서 귀촌했다. 그보다 3년 전인 47세 때부터 그는 50세 이후의 삶을 새롭게 설계했다. 당시 그는 미국의 어느 화물운송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두루 가본 경험을 통해 해외에 농업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막상 그는 국내로 눈을 돌려 귀촌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 김영혜(54세) 씨도 반대하지 않았다. 김씨는 꽃을 너무 좋아해 남편에게 농촌에 가서 장미농장을 하자고 제의했다.

반년 농사가 가능한 포도 작목 선택

최씨 부부가 장미농장을 하기 위해 처음 내려갔던 곳은 경북 경주였다. 그러나 일을 벌이다 말았다. 최씨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러 찾아갔다가 만나고 돌아온 후 장미를 포기한 것이다.

“그 친구가 장미는 1년 365일 일해야 한다며 2시간 동안 만류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권한 작목은 포도였다. 포도는 1년 중 6개월만 일하면 된다고 했다. 최씨는 장미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가까스로 양보를 받아냈다.

결국 두 부부는 포도를 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선택한 귀농처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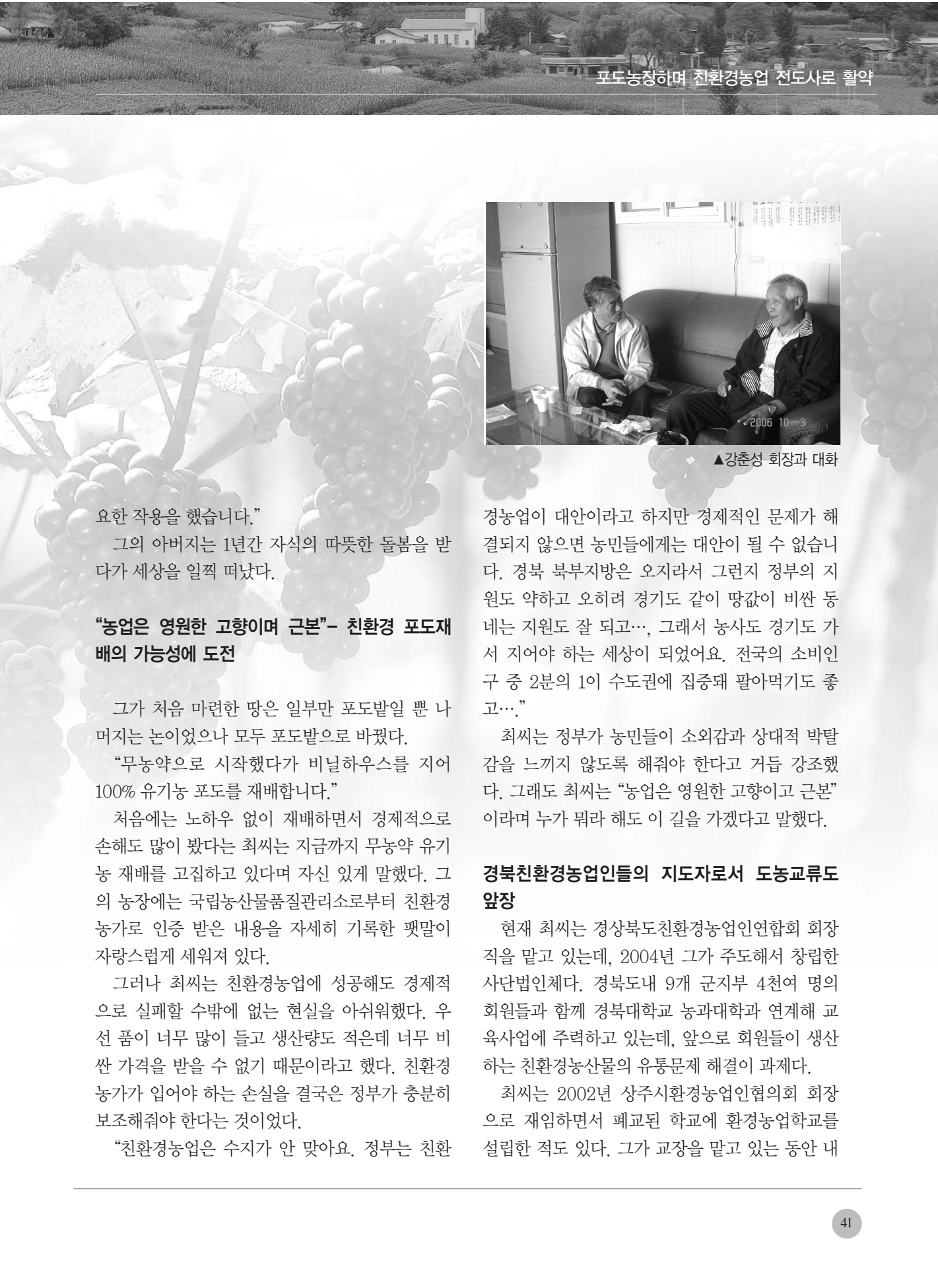
“서울에서도 모동포도가 알아주더군요. 그래서 모동을 택했죠. 1996년 2월 20일 여기 와보니 눈이 쌓였는데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 아내가 반했지요.”

최씨는 괴산 자연농업학교에 들어가 포도재배에 대한 공부도 하며 첫 농사를 시작했다.

“처음 1년간은 포도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집은 대구로 옮기고 우리는 포도밭 근처에 방을 구해 왔다 갔다 하며 지냈지요. 4~5월이 되니 포도 알이 맺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자연농업학교에서 농약을 쳐서 재배한 포도는 자칫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슬라이드를 통해 생생하게 보고 난 후 친환경 포도재배법에 눈을 떴다. 절대 농약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처음 1년간 시험재배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모동면 덕곡리에 2천500평의 땅을 구입하고 이듬해 1997년 3월 이사했다. 그 후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던 노부모와도 가정을 합쳤다. 그의 양친은 고향인 경북 예천에 살고 있었는데, 상주로 모시고 왔다.

“사실 제가 맏이로서 노부모님을 시골에서 계속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애초 귀촌을 결단하는데 중



▲강춘성 회장과 대화

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년간 자식의 따뜻한 돌봄을 받다가 세상을 일찍 떠났다.

“농업은 영원한 고향이며 근본”- 친환경 포도재배의 가능성에 도전

그가 처음 마련한 땅은 일부만 포도밭일 뿐 나머지는 논이었으나 모두 포도밭으로 바꿨다.

“무농약으로 시작했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100% 유기농 포도를 재배합니다.”

처음에는 노하우 없이 재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도 많이 봤다는 최씨는 지금까지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고집하고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그의 농장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로부터 친환경 농가로 인증 받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팻말이 자랑스럽게 세워져 있다.

그러나 최씨는 친환경농업에 성공해도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우선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생산량도 적은데 너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환경 농가가 입어야 하는 손실을 결국은 정부가 충분히 보조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친환경농업은 수지가 안 맞아요. 정부는 친환경

농업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경북 북부지방은 오지라서 그런지 정부의 지원도 약하고 오히려 경기도 같이 땅값이 비싼 동네는 지원도 잘 되고..., 그래서 농사도 경기도 가서 지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전국의 소비인구 중 2분의 1이 수도권에 집중돼 팔아먹기도 좋고...”

최씨는 정부가 농민들이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도 최씨는 “농업은 영원한 고향이고 근본”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친환경농업인들의 지도자로서 도농교류도 앞장

현재 최씨는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2004년 그가 주도해서 창립한 사단법인체다. 경북도내 9개 군지부 4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경북대학교 농과대학과 연계해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원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문제 해결이 과제다.

최씨는 2002년 상주시환경농업인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폐교된 학교에 환경농업학교를 설립한 적도 있다. 그가 교장을 맡고 있는 동안 내



▲비닐하우스 앞에서 부인, 강춘성 회장과 함께

실 있는 운영으로 경북도로부터 농업인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지금도 후임회장이 경북도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으며 도내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 꼭 다녀가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굳혔다. 뿐만 아니라 상주환경농업학교는 도시의 소비자들과 청소년들을 초대해 친환경농업과 전통문화체험, 자연학습을 하는 도농교류의 장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농장도 도시민들의 체험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승지 주말과수원’이다.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지금은 친환경농업 박사나 다름없는 최씨는 농촌문제를 해박한 이론과 논리로 설명했는데,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줄줄이 꿰고 있었다.

“경북 북부지방은 11개 시·군 270만 명이 한때 살았으나 지금은 70만 인구가 줄었습니다. 2010년에 가면 지금보다 농촌인구는 반으로 줄어들 것

입니다. 서울 인구를 소개시켜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은퇴한 후에 말레이시아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찾아 그들이 원하는 도시와 문화시설을 여기도 만들면 됩니다. 상주시는 문화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사는 도시의 쇠퇴를 걱정하며 나름대로 회생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귀농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에게 다른 지방보다 비교적 땅값이 싼 경북 북부지방을 권유했다.

환경농업을 몸소 실천하며 교육하고 농업인들을 조직화하여 이끄는 일로 늘 바쁜 그가 또 하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서울과 대구 등의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연활동이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라이온스 회원들에게 강연을 했죠. 도시인들이 농민들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내실 있는 교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농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운동꾼’이 되어 설치고 다니느냐는 오해도 간혹 받는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농촌과 환경농업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씨는 자신이 생산한 포도와 가공한 포도즙을 여성민우회 부설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직거래하며 택배로 전국 어디든 보낸다. 두 딸을 둔 그는 큰딸을 출가시켰고, 작은 딸은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대학교 2학년에 다닌다. 지금 집에는 최씨 부부가 86세의 노모를 모시고 산다. ㉟